

2025년 설 가정예배 순서지

■ 예배로의 초대 ————— 사회자

“설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 찬 송 —————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다같이

■ 대표기도 ————— (가족 중 한 명이 하고 만약 마땅치 않으면 사회자가 한다.) ————— 기도자

■ 성경봉독 ————— 골로새서 3장 12-14절 ————— 다같이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 말 씀 ————— [새해의 소망] ————— 사회자

2025년 설 명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택하신 가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이며, 그분의 사랑으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 정체성은 단순한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의 방향성과 태도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설 명절에는 전통적으로 새 옷을 입으며 한 해를 시작하는 '설빔'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옷이 아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영적 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옷은 우리 내면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자 다짐해도,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정은 화해와 치유의 장이 됩니다.

셋째, 사랑으로 띠를 매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완전한 띠가 바로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은 긍휼과 자비, 용납과 용서의 기초이자 그 완성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덕목을 갖추어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고 서로를 묶는 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겸손히 섬기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띠를 맬 때 우리의 가정을 영적인 안전망의 역할을 서로 감당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 새해를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찬 송 ————— (550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다같이

■ 주기도문 ————— 다함께